



처음 공개되는 '풍수'

# '오방색' 故 오승윤 작품 만나다

### 30여점 전시, 첫 공개 '풍수' 눈길... 6월18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고(故) 오승윤(1939~2006) 화백은 '오방색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황·청·백·적·흑으로 이루어진 오방색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조화를 보여주려 했던 그는 하늘, 강, 나무, 꽃 등과 인간, 물고기, 새 등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본질을 그려왔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31일부터 오는 6월18일까지 '오승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방색을 기초로 한국인의 정신과 자연을 표현한 풍수와 꽃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한다. 다수의 판화 작품이 한 자리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0년대 초반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작업 중 전시작을 선별했다. 대구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전에 이은 전시로

1999년 광주신세계갤러리 초대전 이후 20년만의 개인 초대전이기도하다.

판화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색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화 작품도 3점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최초로 공개되는 1999년 작 '풍수' 작품을 눈여겨 볼만하다. 검은색 하나만으로 꽃과 나무, 새, 사슴, 물고기 등 동식물을 표현한 작품은 흰 여백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또 다른 원화 작품인 '산간과 마을', '꽃'은 다채로운 색채로 아이그림같은 오화백의 작품 특징을 만날 수 있다.

판화 작품으로는 '금강산(봄)', '지리산', '새벽' 등이 전시된다.

그의 화풍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다. 그는 화면 속 자연 동·식물의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하며 그 절제되고 단순화된 선 안에는 화려하고 명쾌한 색을 채워 넣는다.

아버지 오지호의 대표작 '남향집'이 그려진 해인 1939년 송악산 아래 개성 남향집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 전후 화순 동복으로 내려와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자랐다. 이번 전시에 평론글을 쓴 오승윤의 아들 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는 "작가의 남도 경험은 그가 한국의 산과 강을 표현할 때 빛에 의한 색의 향연으로 자연에 대해 느끼는 감동을 담게했다"며 "자연의 하늘, 흰구름, 물 등 기본 요소와 그 속에서 사는 인간, 새, 물고기의 온갖 생명의 조화와 질서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 화백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1976년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



'꽃'

남대학교 예술대학 창설 교수로 활동하다 프랑스 아카데미 드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공부한 그는 귀국후 교수직을 내려놓고 작업에만 몰두했다. 1996년 몬테카를로 국제현대미술전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 미술지 '위니베르 데자르(Univers des Arts)'의 표지를 장식하는 등 한국과 유럽화단에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문의 062-360-16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서'

### 조현택·김설아 2인 초대전, 6월26일까지 무안 오승우미술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관장 박현화)이 사진작가 조현택 작가와 서양화가 김설아 작가 2인 초대전(6월26일까지)을 열고 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서-그리고 상실은 욕망이 된다'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조현택 작가의 카메라는 곧 사라져 버릴 '빈방'을 향한다. 그의 작품은 '방 안에 비친 바깥 풍경'이라는 이중의 시선을 통해 그리움의 대상과 만나게 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을 촬영했던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함평군 월야면, 나주시 중앙동의 빈방과 빈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시각화된다. 또 작품에는 그곳에 살았을 누군가가 남겨 놓은 낙서나 커튼, 포스터 등을 자신의 시선으로 재배치하고 집 밖의 풍경을 집 안으로 들여와 한 때 그곳에 머물렀던 이들의 기억까지도 함께 담아냈다.

조작가는 지금까지 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 입주작가,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서울 대안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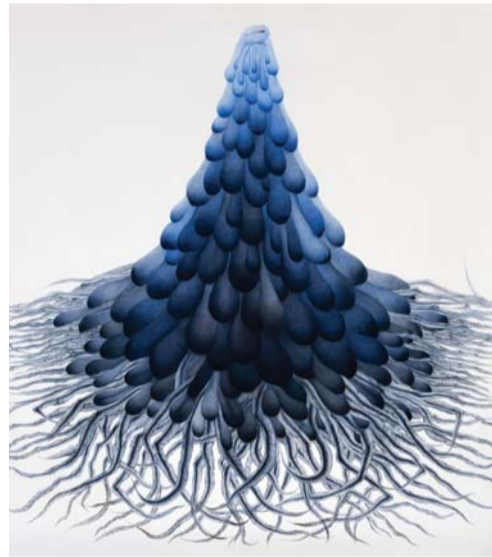
폴 젊은 작가 등에 선정됐다.

김설아 작가의 작품은 우선 소재면에서 낯설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김 작가가 주목하는 건 육안으로는 쉽게 관찰하기 힘든 형상들이다. 먼지, 깃털, 짙진벌레 모양의 단세포 생물, 곰팡이, 재, 그리고 기억에 이르기까지 사라져 버린 시간과 기억을 시각화했다. 무엇보다 수많은 세밀 작업으로 완성한 작품들은 신비로운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2016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김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거쳐 인도 바르다 마하라자 사야지라오 예술대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인도 더 컬렉티브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입주작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교류 일본 요코하마 벵크아트스튜디오 NYK 입주작가 등으로 활동했다. 문의 061-450-5481. /김미은 기자 mekim@



조현택 작 '56번방-함평군 월야면 백아리'



김설아 작 '눈물, 그 건조한 풍경'

## 환상적인 춤의 향연속으로

### '광주무용제' 내일 문예회관, 전국무용제 광주대표 선발

전국 무대를 목표로 하는 지역 안무가·무용수들이 광주에서 화려한 춤사위로 경합을 벌인다.

'제28회 광주무용제'가 오는 6월1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사)광주무용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제28회 전국무용제'에 출전할 광주대표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이기도 하다.

이날 대회는 신인 무용수들이 출전하는 솔로, 듀엣 경연과 광주현대무용단, 서영무용단, 예무알발레단, 비상무용단의 단체부문 경연으로 구성됐다.

'광주현대무용단'이 일상이 멈추는 순간 우리 주변의 풍경과 서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무용 '제자리에 A Position Place' (안무 선유라)를 선보이고, '서영무용단'은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다양한 각도와 상징 그리고 이미지를 결합한 춤사위로 풀어낸 '프리즘' (안무 서영)을 무대에 올린다.

이어 '예무알 발레단'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선열들을 기억하는 발레 무대 'THX(thank)' (안무 강선영)를 펼치며, '비상무용단'이 무한한 계단 위에서 현실과 이상이 뒤섞이는 모습을 표현한 '멘로즈의 계단' (안무 박종민)을 선보이며 경연을 마무리한다.

경연에 앞서 축하 공연으로 광주시립발레단이 '라 실피드'의 일부분을 공연하고, 지역 원로무용인 허순선씨가 '수건입춤'을, 한국무용협회 지원 공연으로 중견무용인 윤세희씨가 '태평무'를 선보인다.

(사)광주무용협회는 지난해 펼쳐진 '제27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뿌리한국무용단'의 '음, 양' (안무 공진희)으로 은상을 받았으며, 그동안 대통령상 10회, 금상 6회, 은상 7회 등 총 23회를 수상했다.

전석 무료. 문의 062-514-263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펼쳐진 '제27회 전국무용제' 참가단체 '광주뿌리한국무용단'의 '음, 양' 공연.

## 광주음악창작소 최종 경연

### 6월2일 광주음악진흥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은 '2019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인큐베이팅 최종 라이브 경연'을 오는 6월 2일 오후 4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층 피크뮤지홀(남구 사직길 17)에서 개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경연은 2015년부터 지역 대중음악의 발전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왔다.

올해 뮤지션 인큐베이팅 사업에는 팝, 재즈, 락, 국악, 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의 51개 팀이 참여했으며, 음원심사와 라이브 심사를 통해 '818', 'The Plastic Kiz', '서즈보이프랑크', 'COSMOS', '페이커 유니버스' 등 5개 팀이 최종 경연을 펼친다.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2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음반제작지원금, 2019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출연 지원, 멘토링 및 쇼케이스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최종 라이브 경연의 축하무대는 전년도 대상팀인 광주 뮤지션 '양리머스'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54-362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재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펙터가스 CES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혁신상부문] 수상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http://www.shinyangparkhotel.com)